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 발전 핵심”

김관영 도지사, 시·군 순회방문 - 익산

전북 산재전문병원 건립 등 현안 적극 협력 약속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구축 사업 현장 방문

올해 초 시군 순회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김관영 도지사가 이번엔 교통 요충지이자 호남의 관문인 익산을 방문해 '익산이 전북 발전의 핵심'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지사는 13일 1일 명예 익산시장이 되어 시장을 직접 살피며 미래 발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우선 첫 일정으로 김 지사는 정현을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과

지역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전라북도 백제왕도 세계유산길 조성 △전북 산재전문병원 건립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서부지원 유치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관 신축 등을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어 익산시 직원 600여명과 함께 하는 '청원과의 만남'을 통해 도정

철학을 전하고 도정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다양한 핵심 자원을 지닌 익산의 대도약을 통해 전북도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함께 혁신하고 함께 도전할 것을 강조했다.

직원들과의 소통 이후 김 지사는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구축 사업 부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으며 홀로그랩 관련 정책사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익산시는 전북도가 표방하고 있는 농생명 바이오식품 수도 육성의 중심지로서 전북 도내 시·군중 가장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교통의 요충지로서 익산의 이점을 충분히 살려 전북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익산을 방문해 주신 김관영 지사께 시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전북도와 익산시가 지속적으로 손을 맞잡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지사는 지역 곳곳을 이동할 때마다 정현을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준비된 버스를 함께 타고 이동했으며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전북도와 익산시의 두터운 협력관계를 확인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김관영 도지사가 13일 정현을 익산시장과 함께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구축 사업 부지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13일 군산 비응항 관광선 부두에서 '전북901호' 취항식이 열린 가운데,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해양환경정화선 교체... '전북 901호' 취항

2020년 해수부로부터 사업비 확보 후 3년 만에
수중 쓰레기 수거·구제작업 지원 등에 활용

전북 연안을 누비며 해양쓰레기 수거·운반 작업에 나선 새로운 해양환경정화선이 취항했다. 전북도는 13일 군산 비응항 관광선 부두에서 '전북901호'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해수부 연안 시군, 해양수산기관단체장 및 지역민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그간 운영해온 정화선(104톤)은 지난 1996년 건조된 선박으로,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유지관리 비용이 커지면서 교체 필요성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 2020년 해양수산부로부터 도서 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사업의 일환으로 총 75억원(국비 50%, 도비 50%)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후 2021년 선박 건조에 착수한 후 2022년 12월 24일 군산시에 소재한 신진조선소에서 진수했고, 시운전 등 최종 점검을 마치고 취항하게 됐다.

전북 901호는 171톤(길이 37.46m, 너비 8m, 깊이 2.9m) 규모로 하이브리드 추진기관을 탑재한 전북 최초의 친환경 관광선이다.

800마력 엔진 2대를 갖춰 최대 속력은 13노트(knt), 최대 승선 인원은 10명(승무원 8, 기타 2명)으로, 기존 정

화선(104톤 규모·580마력) 대비 성능 및 활용도가 뛰어나다.

또한, 선박의 앞뒤에서 정화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선수 부분에도 쓰레기 수거용 크레인(오렌지 그랩 포함)이 설치됐으며, 짐작 폐기물 수거 및 어장 경우 이외에도 부유 지장물 제거까지 가능하다.

특히, 선박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는 전북901호에 실려있는 작은 작업선(단정)을 활용한 작업이 가능해 효율성 증대도 기대된다.

향후 전북 901호는 연안 해역과 도서 지역을 순찰하면서 방치된 해양쓰레기와 페스터포플, 폐그물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유해생물 발생 시기에는 예찰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구제작업 지원을 통해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작업에도 투입될 예정이다.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해양 유류오염 상시 감시와 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 살피고 방역 방제작업 지원, 도서 지역 해양쓰레기 수거·운반 등 해양환경 정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수요에 맞춰 전북901호를 운영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그는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민관 공조형 해양쓰레기 관리체계 구축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

태조 이성계 역사탐방
여행상품 기획·운영

도, 보조사업자 22일까지 모집

전북도는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역사적 발자취를 좇는 '태조 이성계 역사탐방' 여행상품의 기획·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주 사무소를 전라북도에 두고 역사캠프 운영 경험이 있거나 운영이 가능한 법인(단체)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단체)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갖춰, 오는 22일까지 전북도청 관광산업과에 제출하면 된다.

전북도내에는 전주 한옥마을, 남원 황산대첩비지, 장수 뜰방생, 임실 상이암을 비롯해 이성계의 역사적인 유적지와 설화 등 문화 자원 51개소(전국 67개소 중 76%)가 위치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관광자원을 활용한 '태조 이성계 역사탐방'을 기획하게 됐다.

'태조 이성계 역사탐방'은 5월부터 도의 거주 학생 일반인(여행자가, 블로거 등) 등을 대상으로 총 10회 회당 1박 2일(20여명)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전북도는 유명 역사강사(인플루언서)가 참여한 홍보 동영상 제작 해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에 게시하고, 홍보 책자를 제작하는 등 관광역 유치에도 힘을 기울인다. /*김재훈 기자

'디지털 농생명 포럼' 오늘 출범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과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함께 주관하는 디지털 농생명 포럼(이하 포럼)이 출범한다. 14일 농촌진흥청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전북도와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전북에 기반을 둔 디지털 관련 기업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농생명 포럼 발대식을 연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농촌진흥청 디지털농업추진단 성제훈 단장, LX공간정보

보연구원 김진 실장, 전북테크노파크 최상호 센터장, 네이버 클라우드 류재준 총괄이사가 강사로 나와 기념 토론 회도 연다. 포럼은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4차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해 지역 경제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된 논의체이다. 농촌진흥청과 LX공간정보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사)미래농업 포럼은

지난해 10월부터 포럼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협의한 끝에 포럼 발족을 성사시켰다. 포럼에서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농업, 그린 바이오 분야의 디지털화·스마트화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산·학·연 간 상생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의 농업 관련 기술과 정보, LX공간정보보원의 공간정보 기술 이바에 디지털 전환 기술 등 첨단기술을 응용할 수 있도록 지역 기반 디지털 관련 전문가들이 힘을 합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세요.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